

말씀선포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예기치 않게 이런 저런 낭패를 당해 낙심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 9-11절 말씀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안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보고 있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당장의 어려움에, 낭패에 절망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양 떼를 먹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2년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어렵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정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의 계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교회

2022 추석가정예배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추석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시100:4-5)

찬 송..... 559장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다함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신 것들을 풍성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 시간 추석 명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

성경봉독..... 이사야 40:9~11 말은이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선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은이

찬 송..... 301장 다함께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죄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